

설 분위기 물씬… 손님 발길에 ‘함박웃음’

광주 양동·봉선 전통시장 가보니

선물 주문 쇄도…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시너지 손님 전주대비 2~3배 증가…지역경제 활력 기대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지역 전통시장에 손님이 몰리면서 침체됐던 지역 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9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영학관의 추운 날씨에도 시장 입구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버스정류장에서 선물과 제수용품을 장만하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곳곳에서는 ‘산지 직송’, ‘명절 특가’ 문구를 내건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이어졌다.

북구 임동에 거주하는 박명숙(72)는 “고민 끝에 이번 설 선물을 김부각으로 정했다”며 “요즘 물가가 부담되지만 가족과 지인들을 생각하면 명절 준비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님이 물리자 상인들의 표정에도 오랜 만에 웃음이 번졌다.

건어물점 운영하는 이영근씨는 “선물용 애주제이 늘어 3주 전부터 완도·신안·무안·통영 등지에서 별치와 김을 미리 수매했다”며 “어획량이 줄어 별치와 오징어 가격이 해마다 5000원 이상 오르

지만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줘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택배 주문이 급증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한층 분주해졌다. 수산물 가게와 정육점 상인들은 연신 땀을 닦으며 포장 작업에 몰두했고, 오토바이 배송 기사들은 선물 상자를 차곡차곡 신느라 쉴 틈이 없었다. 시장 곳곳에서는 ‘산지 직송’, ‘명절 특가’ 문구를 내건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이어졌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30)는 “사과는 6만~8만원 배는 4만5000~5만 5000원대로 지난해 설보다 1만원가량 올랐다”며 “가격 부담이 커 걱정했지만 주문량이 늘어 매출은 크게 오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장에서 비

교적 저렴한 물량을 확보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장을 마친 시민들은 어복과 후딱, 국밥집 등 먹거리 가게에 들러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담소를 나눴다. 명절을 앞둔 전통 시장 특유의 정취가 자연스럽게 되살아나



설 명절을 앞둔 9일 광주 남구 봉선시장에서 김병내 남구청장과 공직자들이 사과, 배 등 선물용 과일과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전통시장 정보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정보기 행사와 주차장 무료개방, 온누리상품권 행사 등을 실시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 행되는 해양수산부 지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관계자들은 상인들을 직접 찾아 ‘해누리’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어울시장 인근에는 ‘온누리상품권 참여 접포’ 안내문이 부착됐다.

같은 날 광주 남구 봉선시장 역시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채소가게 상인들은 활발한 입담과 덤을 앞세워 손님을 끌었고, 한 상인은 손님의 요청에 시금치와 숙주나물을 얹어주며 웃

음을 보였다.

봉선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박하 권씨는 “참기름과 들키름, 고춧가루를 찾는 손님이 지난주보다 2~3배 늘었다”며 “제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설 명절을 계기로 소비가 조금이나마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승태영 기자 sty1235@

한수원,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착수

안전성 확보·4월 초 발전 재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한빛 6호기(기압경수로형, 1000㎿급) 제16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에는 원전 연료 교체와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점검, 터빈 증기 벨브 점검 등이 이뤄진다.

한수원은 이를 통해 설비의 종합적인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전 재개는 정비 완료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능 승인을 받아 4월 초 순 이뤄질 예정이다.

계획예방정비는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설비 검사와 점검, 정비 등을 수행하는 절차다. 국내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통상 약 18개월 주기로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한다.

영광=정규발 기자 ykgnp98@

광주 보행 안전 실천지수 전국 ‘최상위권’

교통문화지수 ‘3위’…보행자 중심 정책·캠페인 등 효과

광주는 보행자 안전 실천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도약한 반면, 전남은 고령 운전자 비중 등 구조적 한계 속에 정체 흐름을 보였다.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는 종합 점수 84.48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운행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

해 산출된다.

해당 평가에서 광주는 전년도 9위에서 6계단이나 뛰어오르고, 등급도 B등급으로 상향되는 등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이런 상승요인의 원동력은 ‘보행행태’였다. 광주는 이 부문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 실천에 대해 기록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점수율은 1년 새 전국 6위에서 2위로 뛰었고, 무단횡단 빈도 역시 15위에서 12위로 개선됐다. 보행자 중심 정책과 시민 참여 교통안전 캠페인이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남은 80.12점으로 14위(D등급)에 머무르며 뚜렷한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남 역시 보행행태에서 전국 4위에 올랐으나 운전자행태 부문 순위가 전년 7위에서 10위로 하락하며 종합 순위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교통문화지수는 운행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

하고 있어 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접수부터 대기, 진료, 귀가 등 전 과정을 함께 한다.

신청은 광산구 아이돌봄 제공기관 (062-942-9332)과 아이돌봄 누리집 (www.idlbo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야 할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등 수 천만원

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서비스다.

직장 업무, 질병, 출장 등의 이유로 아

이를 직접 병원에 대려갈 수 없는 긴급한 경우 전남 아이돌보미가 부모 대신 아이

와 동행하며 진료를 돋는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광산구 거주 가정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아이돌보미가 가정이나 학교(어린이집)

등을 찾아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접수부터 대기, 진료, 귀가 등 전 과정

을 함께 한다.

신청은 광산구 아이돌봄 제공기관 (062-942-9332)과 아이돌봄 누리집 (www.idlbo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경찰, 조선대 농구부 지도자 보조금 횡령 수사

경찰이 학생 선수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운영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조선대 학교 농구부 지도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조선대 농구부 지도자 A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 선수들을 위해 사용해 야 할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등 수 천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회 출전 선수 명단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뒤 일부를 빼돌리거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운영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A씨 등을 검찰에 송

치했으나, 검찰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수

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교통문화지수는 운행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

하고 있어 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접수부터 대기, 진료, 귀가 등 전 과정

을 함께 한다.

신청은 광산구 아이돌봄 제공기관 (062-942-9332)과 아이돌봄 누리집 (www.idlbo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교통문화지수는 운행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

하고 있어 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접수부터 대기, 진료, 귀가 등 전 과정

을 함께 한다.

신청은 광산구 아이돌봄 제공기관 (062-942-9332)과 아이돌봄 누리집 (www.idlbo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교통문화지수는 운행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

하고 있어 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접수부터 대기, 진료, 귀가 등 전 과정

을 함께 한다.

신청은 광산구 아이돌봄 제공기관 (062-942-9332)과 아이돌봄 누리집 (www.idlbo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교통문화지수는 운행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

하고 있어 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접수부터 대기, 진료, 귀가 등 전 과정

을 함께 한다.

신청은 광산구 아이돌봄 제공기관 (062-942-9332)과 아이돌봄 누리집 (www.idlbo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교통문화지수는 운행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

하고 있어 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접수부터 대기, 진료, 귀가 등 전 과정

을 함께 한다.

신청은 광산구 아이돌봄 제공기관 (062-942-9332)과 아이돌봄 누리집 (www.idlbo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교통문화지수는 운행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

하고 있어 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접수부터 대기, 진료, 귀가 등 전 과정

을 함께 한다.

신청은 광산구 아이돌봄 제공기관 (062-942-9332)과 아이돌봄 누리집 (www.idlbo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교통문화지수는 운행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

하고 있어 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접수부터 대기, 진료, 귀가 등 전 과정

을 함께 한다.

신청은 광산구 아이돌봄 제공기관 (062-942-9332)과 아이돌봄 누리집 (www.idlbo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교통문화지수는 운행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

하고 있어 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접수부터 대기, 진료, 귀가 등 전 과정

을 함께 한다.

신청은 광산구 아이돌봄 제공기관 (062-942-9332)과 아이돌봄 누리집 (www.idlbo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해설 07:24 일설 01